

# 《法華經五序諺解》에 대하여

유 필 재\*

## 1. 머리말

《法華經諺解》는 1463년(세조 9)에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것이 原刊本이다. 그 외에 간년이 확실한 것으로 1523년(중종 18)의 한 사찰, 1545년(인종 1)에서 1547년(명종 2) 사이에 전라도 나주 中峰山 雙溪寺, 1764년(영조 40)에서 1768년 사이에 충청도 德山 伽倻寺에서 간행된 것들이 있으나 이는 원간본의 복각본으로, 원간본과 동일한 자료로 다루어도 문제가 없는 것들이다.<sup>1)</sup> 한편 1500년(연산군 6)에 개간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원간본과 체재와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개의 자료로 다루어야 한다.<sup>2)</sup>

그런데 《法華經》 전체가 아니라 序文의 일부와 卷 1의 앞부분만을 번역한 이본이 있다. 原刊本의 해당 부분과 번역은 거의 일치하면서도 체재와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동일한 계열의 자료로 다룰 수 없는 문헌이다. 卷末題인 ‘妙法蓮華經五序’에 따라 ‘法華經五序諺解’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문헌은 이미 小倉進平(1964:224)에서 서지 사항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安秉禧(1991)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간략하였기에 그 것이 갖는 서지학적, 국어학적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 박사과정 수료

1) 최현배(1961:106), 安秉禧(1992=1979), 安秉禧(1991) 참조

2) 安秉禧(1992=1971) 참조

필자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 이 책은 두 곳에 소장되어 있다. 하나는 서울대 규장각 도서에 있고(古 1730-14E-1) 또 하나는 日本 東京大學 文學部の 小倉文庫에 소장되어 있다(L174668). 필자가 實査한 바에 의하면 둘은 완전히 동일한 판본이다. 다만 규장각 소장본은 후대에 改裝이 있었던 듯하다. 이 점을 제외하면 둘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규장각 소장본을 중심으로 그 체제와 내용을 살펴 나가기로 한다.

## 2. 書誌學的 考察

규장각 소장본은 목판본이며 책 크기는 28.5×22cm이다. 線裝本인데 表紙는 후대에 개장된 것으로 보인다. 四針眼訂으로 되어 있으나 원래는 五針眼訂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表題는 '妙法蓮華經'이다. 半葉匡郭은 20×17.5cm이며 四周單邊, 有界이며 10行 18字이다. 口訣만은 雙行으로 되어 있다. 版心은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나 단, 22張은 魚尾가 없다. 元간본은 四周雙邊에 9行 17字로 판식에 있어서 다르다. 版心題는 '法華' 또는 '法'이다. 元간본의 판심제는 '法華經'이나 그 복각본들의 판심제는 '法華'나 '法'이 많다. 규장각 소장본도 복각본들처럼 판심제가 '法華'나 '法'이다. 1冊 23張인데 마지막 장은 張次가 '十六'으로 되어 있다. 다만 본문의 16張의 판심제가 '法華'임에 비하여 마지막 장의 판심제는 '法'으로 되어 있어 양자의 차이를 보여준다.

규장각 소장본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元간본의 체제를 간략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元간본의 체제는 대략 다음과 같다.<sup>3)</sup>

箋文	
造雕官名	
序文	①新註法華經序 ②妙法蓮華經序 ③妙法蓮華經弘傳序 ④妙法蓮華經要解序
卷1	開釋科五 (1)初通釋經題 (2)二通述鄰意 (3)三通敘科判

3) 李浩權(1993:134) 참조.

④四譯經人時 ⑤五正釋序品  
妙法蓮華經序品第一

.....

卷2

.....

卷7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간본 《法華經諺解》는 모두 7권으로 되어 있는데 언해는 鳩摩羅什의 漢譯과 戒環의 要解에만 행해져 있고 一如의 集註는 한문 원문만을 실고 있다. 규장각 소장본은 一如의 集註 부분은 모두 생략하였으며 위의 '序文' 중 ③과 ④, 그리고 卷1의 '開釋科五'<sup>4)</sup> 중 ①, ②, ③ 만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의 권말제가 '妙法蓮華經五序'가 된 것도 이러한 체재상의 이유에서이다. 본문은 22張의 앞면에서 끝나고 22張의 뒷면에는 刊記가, 그리고 23張에는 跋文과 施主秩이 있다.

본문의 체재는 한문 원문에 한글로 구절을 달고 해당 원문 부분이 모두 끝난 후에 언해가 나온다. 원간본과는 달리 언해 부분에 쓰이는 한자에는 한자음이 달려 있지 않다.

간기는 22張 뒷면에 '歲次己亥四月 日 栖鳳寺刊行'으로 되어 있다. 刊年 이 年號로 표시되지 않고 단지 干支로만 나타나 있어 정확한 간년 추정에 어려움을 준다. 16세기와 17세기만을 대상으로 하여도 '己亥'는 다섯 번이나 있다. 1539년(嘉靖18, 中宗34), 1599년(萬曆27, 宣祖32), 1659년(順治16, 孝宗10), 1719년(康熙58, 肅宗45), 1779년(乾隆44, 正祖3)이 그것이다.

이 책의 서지적 사항을 소개한 小倉進平(1964:224)에서는 '己亥'를 用紙, 用語, 字體 등으로 보아 1599년(萬曆27, 宣祖32)으로 보아야 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추정은 실제로 이 문헌의 간년으로 통용된 바도 있다.<sup>5)</sup> 小倉進平(1964)의 추정이 옳바르다면 이 책은 16세기말 자료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金相溟(1991)의 조사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栖(棲)鳳寺'에서 간행

4) 이 부분은 각 品の 본문에 앞서 그 품에 대한 계환의 科解 부분이다.

5)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所 編(1976), 朴相國 編(1987) 등이 그러하다.

된 것으로 알려진 책 중에서 간기가 확실한 것은 모두 세 가지이다. 1639년(崇德4, 仁祖17)에 간행된 《妙法蓮華經》과 1659년(順治16, 孝宗10)에 간행된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雲水壇歌詞》가 그것이다. 1639년은 己卯이기 때문에 일단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659년은 己亥로 干支만으로 볼 때는 규장각 소장본과 일치한다. 만약 간년이 확실한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雲水壇歌詞》와 규장각 소장본 사이에, 간행과 관련하여 공통된 사실이 나타난다면 규장각 소장본의 '己亥'는 간년이 확실한 두 책의 '己亥'와 동일시 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규장각 소장본의 간행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규장각 소장본의 마지막 장은 後跋에 이어서 施主秩이 나오고 刻手名으로 '坦輝, 懷遠'이 나타난다. 마지막 행에 '淸風衲子大功德主敬熙比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跋文을 쓴 사람이 바로 '淸風' 혹은 '敬熙'라는 이름의 승려임을 알 수 있다.

서울대 규장각 소장의 栖鳳寺版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古 1750-15A)의 간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順治十六年己亥 夏四月日 慶尙道昆陽郡地 鳳鳴山 栖鳳寺留板  
大功德主淸風衲子敬熙比丘 板子出入兼別座坦輝

이 책도 역시 大功德主는 '淸風衲子敬熙比丘'로 《法華經五序諺解》의 간행에 참여한 인물과 동일인이다. 더구나 《法華經五序諺解》에서는 刻手로 기록되었던 '坦輝'라는 인물도 이 책에서는 '板子出入兼別座'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두 책은 동일한 인물들에 의해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정은 동국대 소장의 《雲水壇歌詞》(D 217.5휴730○사)도 마찬가지이다. 이 책의 간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順治十六年己亥 正月日 昆陽郡 鳳鳴山 棲鳳寺留板  
大功德主敬熙比丘

또한 앞선 두 문헌에서 나타난 ‘垣輝’의 이름도 보인다(助緣別座垣輝).

결국 이 세 책의 간행에는 敬熙比丘와 垣輝가 공통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세 책은 모두 1659년(順治16, 孝宗10)에 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세 문헌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같은 시기에 간행되었다고 볼 때 《法華經五序諺解》의 跋文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願我戊戌之年 始役於三四請文等經 訖功於己亥之冬 而因爲法華五序諺解開刊印出 萬世流布也 而不適其意 未遂我願矣 越庚子之春爲始畢功於辛丑之夏也 我願十方壇越同歸極樂之邦 證得龍華之授記云爾.

위의 발문에서 ‘三四請文等經’은 이 책이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雲水壇歌詞》와 함께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장각 소장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의 간기가 있는 면의 ‘登彼岸十方壇越壽同歸極樂之願’이라는 祝願은 위의 발문의 ‘我願十方壇越同歸極樂之邦’ 부분과 일치됨을 보여 이 둘이 동일인에 의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규장각 소장의 《法華經五序諺解》는 栖鳳寺版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雲水壇歌詞》와 함께 동일한 인물에 의해 동일한 시기에 의해 간행된 것으로 그 간년은 1659년(己亥16, 孝宗10)이므로 17세기의 국어사 자료로 다루어야 한다.

### 3. 國語學的 考察

이상의 서지학적 검토에 의해서 《法華經五序諺解》가 17세기 국어사 자료로 다루어져야 할 것을 알았다. 물론 국어사 자료로서 가치있는 부분은 언해 부분과 한글 구결 부분이다. 그런데 이 문헌의 언해 자체는 1467년의 원간본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비록 그 간년은 17세기라 하더라도 그 언해에 반영되는 언어 사실 자체는 15세기에 간행된 원간본의 그것에 크게 지배 받았음을 알려 준다. 따라서 원간본과 비교하여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을 위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한다.

우선 표기에 있어 重綴과 分綴이 두드러진다. 특히 분철은 15張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 사실은 단순한 우연은 아닌 듯한데 표기뿐 아니라 字體도 15張 이후로 이전의 그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발문의 ‘而不適其意 未遂我願矣 越庚子之春爲始畢功於辛丑之夏也’에서 알 수 있듯이 庚子年(1660)에 시작된 수정 작업에서 집중적으로 분철이 사용된 듯하다. 중철과 분철의 순으로 몇 예를 보인다. 참고를 위해 뒤에 원간본의 표기를 함께 제시한다.

사름모로 <7b>, 사르모로 <序 22a>  
 눈네 <8a>, 누네 <序 22b>

뜰을 <15a>, 뜰들 <1:9b>  
 말애 <15a>, 마래 <1:9b>  
 말삼을 <16a>, 말삼돌 <1:10b>  
 집이 <19a>, 지비 <1:14b>

각자병서를 폐기한 것은 1500년 간행된 改刊本 《法華經諺解》와 동일하다.<sup>6)</sup>

한자음 표기와 관련하여 한두 가지 언급할 사항이 있다. 《法華經五序諺解》는 언해에 있어 한자어는 한자음을 달지 않고 있는데 한글로만 표기된 예에서는 해당 한자의 현실음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있다.

이 경 <2b>, 이 經경 <序 8b><sup>7)</sup>  
 번역하니 <2b>, 翻譯譯하니 <序 9a>  
 만꽈 <3a>, 滿만꽈 <序 13a>  
 궁究하며 <7a>, 窮궁究함 <序 21b>

또 마치 해당 한자음의 末음을 표시한 듯한 예가 있다.

6) 이에 대해서는 安秉禮(1992=1971:282-84) 참조.

7) 原刊本 《法華經諺解》의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표시하지 않는다.

討論ㄴ호몰 <7a>, 討論論호몰 <序 21b>  
 迷惑기이 <7b>, 迷惑惑획이 <序 22b>

이러한 예들은 매우 드문 예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論, 惑’의 음으로 중성이 없는 예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들은 원간본의 동국정운식 한자 음 표기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과정에서 생긴 단순한 실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예가 한자의 독음을 지정하기 위해 쓰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후행하는 조사가 ‘-을’이어서 문제이다.

解쟁을 <15a>, 解쟁를 <1:9b>

또한 중세국어에서 조사 ‘-이’와 계사 ‘-이-’는 선행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 -이-’, /이/와 /j/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면 ‘-ㅣ, -ㅣ-’로 교체한다.<sup>8)</sup> 그런데 《法華經五序諺解》에서는 선행 체언의 음운론적 조건에 관계없이 ‘-이, -이-’로 표기된 예가 보인다. 이것은 16세기 이후 문헌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正法華이오 <2b>, 正法華ㅣ오 <序 8b>  
 琴瑟笙篳이 <8b>, 琴瑟笙篳ㅣ <序 23a>

다음으로 음운 체계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원간본의 ‘△’에 대응하는 것은 대부분 ‘o’으로 나타난다.

막으물 <3a>, 막스물 <序 12b>  
 나아가 <8a>, 나사가 <序 22b>

모음조화도 정제된 양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곡용의 경우가 대부분 그러하다. 그런데 본문 중에서 모음조화를 어기는 열서너개의 예들은 모두 ‘으’로 표기해야 할 것을 ‘으’로 표기한 예들뿐이다. 반대의 경우는 전혀 나타나지

8)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불경언해부터 /이, j/로 끝난 체언 뒤에도 ‘-ㅣ, -ㅣ-’를 표기하기 시작한다. 교영근(1987:77) 참조.

않는다.

사람의 <15b>, 사르미 <1:10a>  
寶藏을 <19b>, 寶藏을 <1:15a>

단 두 예이기는 하지만 ‘으 > 오’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들이 있다.

전초로 <7a>, 전초로 <序 21a>  
툄도이 <7a>, 툄드이 <序 21a>

문법과 관련해서는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는 원간본과 구결, 언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다음의 두 가지 사항만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조사 ‘-와/과’와 관련하여 중세국어와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세국어에서는 ‘-와/과’에 의해 체언이 접속될 때 가장 마지막 체언은 ‘-와/과’ 뒤에 격조사가 연결되는 경향이 강하다. 현대국어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일시울과 혀와 업과 니엌 다 도호며 (밑줄 : 필자) <釋譜詳節 19:7b>

그런데 《法華經五序諺解》에서 현대국어와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sup>9)</sup>

일홍과 實이 굴와 나뉨 전초로 <12a>,  
일홍과 實왜 굴와 나뉨 전초로 <1:4b>  
慈恩과 너븐 跣 네며 <15b>,  
慈恩과 너븐 跣와 네며 <1:10a>

다음으로 사이시옷의 쓰임에 관한 것이다. 원간본의 사이시옷 중 많은 부분이 《法華經五序諺解》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단순히 명사를 연결하는

9) 중세국어 당시에 현대국어와 같은 예가 존재한다.  
하늘과 짜히 크고 <두시언해 초 21:2a>



사이시옷뿐만 아니라 이른바 주어적 속격, 목적어적 속격으로 쓰인 것도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本來ㅅ들 <2b>,      本來ㅅ ㅅ들 <序 7a>  
 ㅅ 그르슬 <8b>,      ㅅ 그르슬 <序 22b>

부터 降靈한산 <15a>, 부터 降靈한산 <1:10a>  
 온 경 지으샤물 보스오리로다 <8a>, 온 經ㅅ 지스샤물 보스오리로다 <序 22b>

마지막으로 본문 중에 보이는 단순한 오류를 지적하기로 한다. 《法華經五序諺解》는 지방 사찰판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다른 지방 사찰판이 그러하듯이 많은 誤字를 보여준다. 그러한 오류를 일일이 제시하는 것은 생략하고 단지 구절 전체가 빠진 부분을 지적하기로 한다. 원간본 권1 4張의 ‘… 버리시고 妙를 가지산 디 아니라 龜에 나사가샤 妙를 나토시며 …’가 《法華經五序諺解》에서는 ‘… 버리시고 妙를 나토시며 …’(12a)로 되어 번역문의 일부가 빠져 있다.

#### 4.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일본 동경대학 小倉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法華經五序諺解》는 체재와 내용면에서 원간본 《法華經諺解》와 동일하게 다를 수 없는 자료이며 그 간년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1599년(萬曆27, 宣祖32)이 아니라 이보다 늦은 1659년(順治16, 孝宗10)이다.

둘째, 《法華經五序諺解》는 그 구절과 연해를 대체로 1463년 간행의 원간본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원간본이 보여주는 연해문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지만 한자음 표기가 달라져 있고 모음조화의 문란 및 ‘ㅅ’과 ‘ㅇ’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조사 ‘-와/과’, 사이시옷의 쓰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분적으로 당시의 언어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의 논의는 대부분 자료집적 성격을 가진 연구들에 크게 의존하였다.

紙質, 字體 등에 의존하는 직관적인 연구도 물론 필요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된 풍부한 자료에 대한 정보야말로 보다 확실한 것을 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불교계 문헌의 각수에 대한 자료 정리뿐만 아니라<sup>10)</sup> 더 나아가 다른 분야의 문헌에 대한 유사한 연구, 그리고 각수뿐만 아니라 시주자에 대한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塔出版社.
- 金相溍(1991) <朝鮮朝 寺刹板 刻手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研究所 編(1976) 《韓國佛敎撰述文獻目錄》, 東國大學校 出版部.
- 朴相國 編(1987) 《全國寺刹所藏 木板集》, 文化財管理局.
- 安秉禧(1991) <法華經諺解>,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_\_\_\_\_ (1992=1971) <改刊『法華經諺解』>, 《國語史 資料 研究》, 文學과 知性社.
- \_\_\_\_\_ (1992=1979) <중세 국어의 한글 자료>, 《國語史 資料 研究》, 文學과 知性社.
- 安秉禧·李玟鎬(1986) 《國語文法論(Ⅱ)》, 韓國放送通信大學 出版部.
- 李浩權(1993) <法華經諺解>, 《國語史資料와 國語學的 研究》, 文學과 知性社.
- 최현배(1961) 《고친 한글갈》, 정음사.
- 韓國佛敎大辭典編纂委員會 編(1982) 《韓國佛敎大辭典》, 寶蓮閣.
- 小倉進平(1964) 《朝鮮語學史(增訂補注)》, 東京: 刀江書院.

---

10) 金相溍(1991)이 대표적인 예이다.